

Our Inner Ape

우리 안의 유인원

프랑스 드 발 지음, 이충호 옮김, 김영사, 2005
France de Waal, Putnam, 2005

글 | 이덕환 _ 서강대 화학과 교수 duckhwan@sogang.ac.kr

우리는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부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인도적'이라고 칭송한다. 그리고 인도적인 행동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굳게 믿는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크게 다르다.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와 끔찍한 대량 학살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성선설이나 근원적으로 악하다는 성악설과 같은 일방적인 주장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짐승'과 '인도적'인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존재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을 파악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독특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 뽐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그런 유난스러운 호기심 덕분이다. 그런 우리에게 유인원(類人猿)은 우리 자신의 유래와 모습을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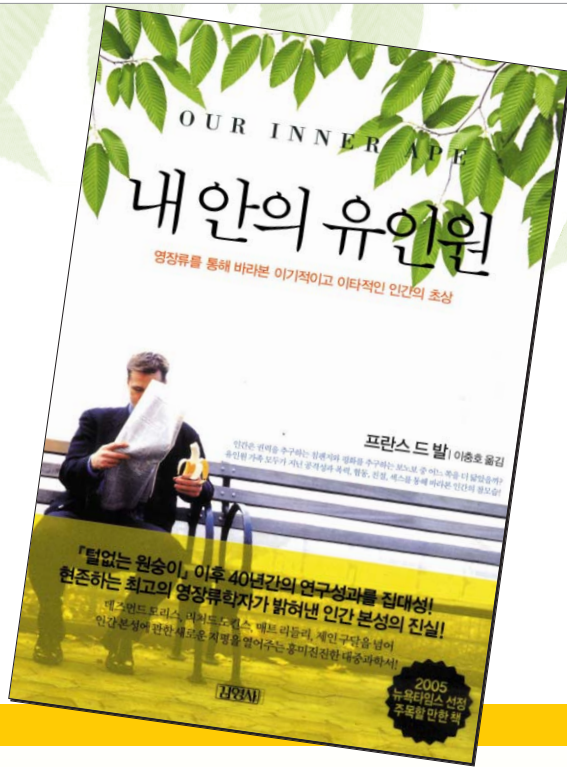
민꼬리원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유인원은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들 중에서 우리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다.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보노보(피그미침팬지)가 바로 그들이다. 오랑우탄은 천 400만 년, 고릴라는 750만 년, 사람은 550만 년, 보노보는 250만 년 전에 처음 출현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먼 옛날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물의 진화에서 그런 시간은 한 순간에 불과할 뿐이다.

침팬지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은 17세기였지만 유인원은 아직도 우리에게 낯선 존재인 것은 분명하다. 제인 구달과 같은 생태학

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것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아직도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지구상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런 유인원이 모두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자칫하면 우리가 스스로의 유래와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그런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유인원들이 모두 지구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조차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형편이다.

거의 모든 경우에 그렇듯이 유인원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것이다. 모두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밝혀진 것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유인원으로 밝혀진 보노보의 존재를 처음 확인한 것은 1929년이었다. 보노보의 걸모습은 보통의 침팬지와 구별이 쉽지 않을 정도로 닮았다. 그런 보노보가 새로운 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곳은 아프리카 밀림이 아니라 벨기에 식민지의 박물관이었다. 독일의 해부학자 에른스트 슈바르츠가 보노보의 두개골이 침팬지의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슈바르츠는 '아프리카숲코끼리'가 새로운 종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노보가 '판 파니스쿠스'라는 새로운 종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물원에서는 1970년대말까지도 '피그미침팬지'라는 잘못된 이름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 동안 우리는 침팬지의 행동 특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침팬지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유인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탄자니아의 콤비 밀림에서 40여 년 동안



침팬지의 생태를 연구했던 제인 구달이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야생의 침팬지는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진 수컷 중심의 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런 침팬지들은 육식을 즐기고, 도구를 만들어서 쓸 줄 알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끔찍한 유아살해도 저지른다. 침팬지의 그런 행동을 보면 우리의 내면에 '도살자'의 특성이 숨겨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우리가 애써 만든 문명은 우리의 유전자에 숨어있는 그런 동물적 특성을 가려주는 얇은 '단판'(單板)일 뿐이다.

그런데 새롭게 얼굴을 드러낸 보노보는 우리에게 동물의 전혀 다른 본성을 보여주었다. 우선 보노보는 폭력과는 거리가 멀다.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보노보는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동물이다. 그렇다고 보노보의 사회에서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통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섹스가 바로 그것이다. 수컷과 암컷 사이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수컷과 수컷, 암컷과 암컷들 사이에서도 섹스는 갈등을 해결하는 지극히 효율적인 전략이다. 그야말로 보노보는 모든 것을 성(性)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셈이다. 그래서 보노보의 생태에 대한 연구는 포르노를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에모리 대학교의 영장류 학자인 프랑스 드 발은 보노보가 침팬지만큼이나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침팬지와 보노보의 생태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드 발은 '내안의 유인원'을 통해서 이들의 권력, 공격성, 섹스, 사랑, 협력, 도덕성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생태에 대한 단순한 '은유적 설명'이 우리의 본성에 대한 완

전한 설명이 될 수는 없다. 드 발은 침팬지와 보노보와 인간의 진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독특한 생태적 환경을 고려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침팬지와 보노보가 진화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점에서 이기적 유전자에 의존한 리처드 도킨스나 개미의 사회성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려는 에드워드 월슨의 시도보다 훨씬 더 강한 설득력을 보여준다.

결국 우리의 내면에는 폭력과 권력의 맛을 즐기는 침팬지와 평화와 섹스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보노보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미 추측하고 있는 것이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걸어왔던 동물의 세계에서 그런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웬지 모르게 신비스럽게 느껴진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보아 원숭이의 후손인 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㉔

〈과학독서아카데미 추천 도서〉

1. 『빛의 제국』 질 존스 지음, 이충환 옮김, 양문, 2006
2. 『평행우주』 미치오 카쿠 지음, 박병철 옮김, 김영사, 2006
3. 『지구의 삶과 죽음』 피터 워드, 도널드 브라운리 공저, 이창희 옮김, 지식의숲, 2006
4. 『시간의 역사(짧고 쉽게 쓴)』 스티브 호킹 외 지음, 전대호 옮김, 까치, 2006
5. 『씨앗은 어디에서 왔을까?』 와시타니 이즈미 지음, 김창원 옮김, 진선출판사, 2006